한국 女양궁 단체전, 올림픽 9연패 금자탑…안산, 2관왕

강채영·장민희·안산, 6-0 가볍게 금메달 획득

역대 하계올림픽 단일대회 3관왕 한국선수 전무

한국 여자 양궁이 올림픽 9회 연속 금메달 금자탑을 쌓았다.

강채영(25·현대모비스), 장민희(22·인천대), 안산(20·광주여대)으로 구성된 여자 양궁대표팀은 25일 일본 도쿄의 유네노시마 양궁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를 세트 점수 6-0(55-54 56-53 54-51)으로 가볍게 따돌리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선배들의 금메달 행진'을 전통으로 여기는 여자 양궁이 다시 한 번 세계 정상을 차지하며 9회 연속 올림픽 제패를 이뤘다.

여자팀은 양궁 단체전이 정식종목으로 도입된 1988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이번 대회까지 단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정상을 지켰다.

올림픽 최다 연속 금메달을 자랑하는 케냐 육상, 미국 수영과 어깨를 나란히 한 순간이다.

케냐는 육상 3000m 장애물 경기에서, 미국은 수영 남자 400m 혼계영에서 9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 10연패에 도전한다.

전날 혼성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안산은 2관왕으로 한국 올림픽 역사와 세계 양궁 역사를 동시에 바꿀 기세다.

역대 하계올림픽 단일대회에서 3관왕에 오른 한국 선수는 없다. 안산이 최초를 노린다.

동계올림픽에선 쇼트트랙 남자의 안현수와 여자 진선유가 단일대회에서 3관왕에 오른 적이 있다.

둘은 나란히 2006년 토리노 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안현수는 러시아로 귀화해 빅토르 안이라는 이름으로 출전한 2014 소치 대회에서도 3관왕을 차지했다.

또 올림픽에선 그동안 양궁 3관왕이 없었다. 지난 대회까지 남녀 개인전, 단체전만 열렸다.

이번 대회부터 혼성단체전이 추가되면서 금메달이 5개로 늘어 3관왕이 나올 수 있게 됐다.

올림픽이 처음인 강채영, 장민희 역시 금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5년 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아깝게 탈락했던 강채영은 올림픽 한을 풀었다.

금메달 2개를 모두 챙긴 한국은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이어 전 종목 석권을 위한 순항을 이었다.

단체전은 한 세트에서 선수당 2발씩 6발을 쏜 점수를 합산하는 식이다. 이기면 2점, 비기면 1점, 지면 0점의 세트 점수를 받아 먼저 5점에 도달하는 팀이 승리한다.

한국은 1세트를 55-54로 간신히 잡았으나 2세트에서 안산이 2발 모두 10점에 꽂으며 기세를 올렸다.

2세트도 56-53으로 승리하며 세트 점수 4-0, 승기를 잡았다. 3세트도 무난하게 54-51로 따냈다. 뉴시스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 강채영과 장민희, 안산이 25일 오후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 양궁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단체 결승전에서 류수정 감독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마지막일 수 있는데"…이대훈, 또 풀지 못한 '금메달 한'

도쿄올림픽 첫 판 충격패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

이대훈(29·대전시청)의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꿈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무대에서도 이뤄지지 않았다. 올림픽과 유독 질긴 악연이다.

이대훈은 25일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메세 A홀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태권도 남자 68kg급 16강전에서 울루그벡 라쉬토프(우즈베키스탄)에게 연장 끝에 19-21로 석패했다. 이 체급 세계랭킹 1위로 금메달이 기대됐기에 여러모로 충격적인 패배였다.

경기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대훈은 2라운드 중반까지 15-4로 앞서가 낙승이 예상됐지만, 2라운드 중반 이후부터 상대의 공격을 내리 허용하며 3라운드 막판 18-19로 역전당했다.

상대의 감점 덕에 힘겹게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갔지만, 연장 시작 17초 만에 몸통 킥을 맞고 골든 포인트를 내줘 아쉽게 패배를 당했다.

첫 판 탈락으로 금메달 도전도 멈췄다. 이대훈은 라쉬토프가 결승에 진출해야 패자부활전을 통해 동메달이라도 노려볼 수 있다.

이대훈은 수 년 동안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의 대표 간판으로 활약했다. 그만큼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5회 연속 출전한 이대훈은 2011년과 2013년에는 63kg급 금메달, 2017년에는 68kg급 금메달, 2019년에는 68kg급 동메달을 수확했다.

이대훈은 4년마다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도 2010년 광저우 대회부터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까지 3회 연속 금메달을 수확했다. 2010년과 2014년에는 63kg급에서, 2018년에는 68kg급에서 금빛 발차기를 선보였다.

월드그랑프리(GP)에서는 2015년부터 5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매년 체급에 관계없이 한 명씩 뽑는 세계태권도연맹(WT) 올해의 남자 선수에도 4번이나 선정됐다.

하지만 유독 올림픽 금메달과 인연이 없었다. 매번 금메달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금빛이 아닌 메달만 품에 안았다.

도쿄 대회는 이대훈의 세 번째 올림픽이다. 2012년 런던 대회부터 3회 연속 출전이다. 한국 태권도 선수가 올림픽에 3회 연속 출전한 것은 황경선(2004·2008·2012년), 차동민(2008·2012·2016년)에 이어 이대훈이 세 번째다.

첫 올림픽이었던 런던 대회에서 58kg급에 나선 이대훈은 결승까지 순항했지만, 결승에서 패배를 맛보며 은메달에 만족했다.

5년 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 68kg급에 나선 이대훈은 8강에서 패배했고, 패자부활전을 거쳐 동메달을 땄다.

의미있는 메달이었다. 한국 태권도 선수가 올림픽에서 다른 체급에 출전해 2회 연속 메달을 딴 것은 이대훈이 최초였다. 또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2회 연속 메달을 딴 한국 태권도 남자 선수로 이름을 남겼다.

그러나 금빛이 아닌 것은 이대훈에게 한이었다. 이미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을 제패한 이대훈은 올림픽 금메달만 있으면 그랜드슬램을 완성하지만, 남은 하나의 퍼즐을 좀처럼 맞추지 못했다.

한국 나이로 30세인 이대훈에게 도쿄 대회는 마지막 올림픽일지도 모른다. 2019년 5월 결혼해 아들이 있는 이대훈은 한층 단단한 각오로 올림픽에 나섰다.

하지만 첫 판 패배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대한 부담감과 코로나19로 인한 실전 감각 저하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이대훈은 16강전에서 패배한 뒤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며 짙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를 많이 뛰지 않다보니 조급한 마음이 컸다. 경기를 이기고 있어도 불안했다"며 "경기 운영을 잘못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 2체급 석권

매화급·국화급 1·2·3위 싹쓸이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개최한 '제58회 대통령기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이 체급전 매화급, 국화급을 석권하였다.

매화급, 국화급 모두 구례군청 소속 선수끼리 맞붙은 결과 매화급은 양윤서 선수가 선채림 선수를 2대0 스코어로 우승하였고, 국화급은 엄하진 선수가 김지한 선수를 2대0 스코어로 우승했다. 두 체급에서 1위부터 3위까지 구례군청 선수가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무궁화급에서 구례군청 김다영 선수가 영동군청 임수정 선수를 만나 2대0으로 패했다.

구례군청 씨름단은 명실상부한 최강 여자씨름단으로서 이번 대회 성적으로 최강임을 다시 입증하였다.

국화급 엄하진 선수

매화급 양윤서 선수

한편 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은 8월 1일부터 6일까지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개최하는 고성여자장사씨름대회 출전을 위해 훈련에 몰입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회 환경이 급변한 상황 속에서도 반달곰 여자씨름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 구례 여자씨름의 위상을 높여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집중타에 무너진 류현진, 6점 지원에도 시즌 10승 실패

4회까지 무실점·5회 5연속 피안타 3실점…시즌 평균자책점 3.32→3.44

집중타를 얻어맞은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시즌 10승 도전에 실패했다.

류현진은 2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시티필드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와 경기에 선발 등판, 4⅓이닝 10피안타 1볼넷 4탈삼진 3실점으로 물러났다.

투구수는 77개. 베이스볼 서번트에 따르면 직구(34개)와 커터(16개), 체인지업(11개), 커브(10개), 싱커(6개) 등을 섞어 던졌다.

4회까지 무실점을 이어간 류현진은 5회 집중타를 피하지 못하면서 시즌 평균자책점이 3.32에서 3.44까지 올랐다.

토론토는 10-3 대승을 거뒀지만,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된 류현진은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시즌 10승 도전을 다음으로 미뤘다.

위기는 4회에 찾아왔다.

4회에 1사 후에는 데이비스와 맥캔에게 연속 안타를 얻어맞았다. 1사 2, 3루에 놓인 류현진은 조나단 비야에게 3루수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 실점하지 않았다.

그러나 6-0으로 달아난 5회를 넘기지 못했다.

첫 타자 케빈 필라를 1루수 파울 플라이로 돌려세운 뒤 메츠 타자들의 집중타가 시작됐다.

류현진은 기요르메에게 좌전 안타를 맞고, 대타 브랜든 드루리에게 체인지업을 던졌다 중월 2루타를 허용했다.

1사 2, 3루 위기를 자초한 류현진은 니모에게 초구 커브를 통타 당해 첫 실점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계속된 1사 1, 2루에서 알론소와 스미스에게 연달아 좌전 안타를 맞으며 6-3까지 추격을 허용했다. 알론소는 초구 체인지업, 스미스는 2구째 직구를 노리는 등 공격적인 배팅으로 류현진을 흔들었다.

류현진이 5연속 안타를 맞자 토론토는 더 이상 지켜보지 않고 투수 교체에 나섰다.

1사 2, 3루에서 마운드를 이어받은 트레버 리차드가 더 이상 점수를 내주지 않고 이닝을 끝내 류현진의 실점은 더 올라가지 않았다.

류현진이 예상보다 빠른 시점 교체됐지만, 토론토는 뜨거운 타선을 앞세워 승리를 지켜냈다.

토론토는 3회초 스프링어의 좌월 솔로포와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좌월 2점 홈런으로 앞서나갔다. 5회초에는 마커스 시미언이 왼쪽 펜스를 넘어가는 스리런 아치를 그려 6-0까지 차이를 벌렸다.

6-3으로 쫓기던 7회에는 보 비셋의 솔로 홈런이 터졌다. 여유있게 달아난 토론토는 9회 비셋의 적시타와 에르난데스의 투런포로 10점 째를 채웠다.

10-3으로 앞선 9회말 등판한 라파엘 돌리스는 안타 2개로 2사 1, 3루에 몰렸지만 실점 없이 그대로 경기를 끝냈다.

한편, 이날 류현진은 내셔널리그 소속인 메츠와 인터리그 경기를 치르며 방망이도 들었다. 2회 우익수 뜬공으로 물러난 류현진은 4회에도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나 2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출발 삐걱' 진종오, 韓 역대 최다 메달은 이뤄질까

10m 공기권총 결선 진출 좌절

"혼성 집중해 좋게 마무리할 것"

압박감 때문일까. '사격의 신' 진종오(42·서울시청)의 도쿄올림픽 출발이 삐걱거렸다.

진종오는 24일 일본 도쿄 아사카 사격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사격 남자 10m 공기권총 본선에서 576점을 기록, 15위에 머물러 본선 상위 8명이 겨루는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의 탈락이다. 진종오로서는 무척이나 아쉬운 결과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부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 3연패를 달성했던 주종목 50m 권총만큼은 아니지만, 10m 공기권총도 진종오가 올림픽 메달과 연을 맺었던 종목이다.

진종오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10m 공기권총 금메달을 땄고, 베이징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에도 메달을 기대했던 종목이지만, 결선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마지막 올림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한국인 역대 최다 메달리스트 기록을 눈 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적잖은 부담을 안긴 듯 했다.

진종오는 이번 대회에서 한 차례 더 사대에 선다. 그의 주종목인 50m 권총은 올림픽에 혼성 단체전이 추가되면서 사라졌다. 대신 27일 열리는 10m 공기권총 혼성 단체전에 나선다.

진종오는 10m 공기권총에서 결선 진출이 좌절된 후 "오늘 결과에 대해 잘 정리하고, 혼성전에 집중해 좋게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시스